

“동시 읽는 기쁨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

제주 문화계 이 사람 (29) 동시 책방 운영 김정희 작가

문학적 감수성 키운 함덕에 2년전 ‘오줌폭탄’ 서점 열어 아동문학가 북콘서트 진행 ‘동시로 올레’ 벽화 그리기 해녀 그림동화 출간도 준비

수성을 키웠다는 김정희 작가. 어른과 아이를 위한 시 창작만이 아니라 시낭송가, 동화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이즈음 내놓는 책마다 주목을 끌고 있다. 2017년 묶은 제주어 동시집 ‘할망네 우영팟의 자파리’는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도서였고 이듬해 발간한 제주어 동시 그림책 ‘정청 거러지라 둠비둠비 거러지라’는 지역도서전 천인독자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어른이 되어도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살려고 한다”는 그는 2년 전 광복절인 8월 15일에 6남매가 북악대인 집에 작은 책방을 차렸다. 동시를 읽는 기쁨을 더 많은 아이, 어른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와 형제들은 가정을 이루며 다들 흠뻑 젖었지만 구수가 넘는 노부모는 지금도 안거리에 살고 있다. 얼마간 비어있던 밖거리(밖거리)에 막내딸이 서점을 꾸리자 부모들도 내심 반기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마당에 피어나던 채송화며 홀로 있을 때 집안 구석구석 관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세 권의 창



6남매 북악대인 집에 작은 책방 ‘오줌폭탄’을 차린 김정희 작가는 “어른이 되어도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작집으로 이어졌고 여기까지 온 기운이 되었습니다.”

서점 안에서 어린 손님을 맞을 알록달록 키작은 의자가 자리잡고 있다. 거실과 방으로 쓰던 낫넨 아이들 책이 놓였다. 최근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작은 책방 지원 프로젝트로 제주 등 전국 10명의 아동문학가와 만나는 북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동시를 읽고 동시 노래를 부르는 이 행사가 끝날 때마다 ‘오줌폭탄’이 들이선 골목길에는 그림 벽화가

하나씩 늘어난다. 동시에서 얻은 감흥을 벽화로 남기는 작업으로 김정희 작가는 여기에 ‘동시로 올레’란 명칭을 붙였다. 우리 집 벽에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만큼 주변 반응이 좋다.

“오늘은 뭐 하시니?”라며 안부를 묻는 동네 사람들이 있는 함덕은 다시 그를 창작의 바다로 이끌고 있다. 9월에 그는 직접 그림을 그린 그림동화 ‘해녀학교’를 펴낼 예정이다. 10~11월 쯤에는 동시집 ‘고사리송 동시학교’가 나온다. 전선희기자

연필화로 풀어낸 주름진 해녀의 삶

현아선 작가 ‘다이버’ 출간 2014년부터 동북리 취재 흑백 화면에 몽클한 생애



흑백 연필화에 제주 해녀들의 신산한 생애가 담겼다. 제주 현아선 작가가 펴낸 그래픽 노블 ‘다이버(DIVER)’다.

이 작품은 1940년 3월부터 2019년 오늘날까지 시대 순으로 따라간다. 물소중이에서 고무옷으로 잠수복이 변해간 세월, 주인공도 갖가지 풍파를 헤치며 지금 여기까지 다다랐다.

바다를 누비며 사는 이들의 안경을 기원하는 칠머리당영등굿으로 책장이 열리면 물질을 하다 아이를 낳는 엄마 해녀의 모습이 이어진다. 찌내음을 품고 태어난 아이는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꼭꼭 누르며 해녀로 성장했고 어느덧 어른살이 넘는 나이가 된다.

“나도 물숨 먹고 죽을 뻔했죠. 경해도 어땠겠어. 나 어릴 적부터 살던 바닷가. 만갓 고생을 했지만은 바닷가 좋았어. 좀수질 하면서 살았어.”

30대 초반인 현아선 작가는 이 작업을 위해 2014년부터 제주도 구좌읍 동북리를 틀날 때마다 찾았다. 해녀 할머니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하는 일만이 아니라 일손까지 거들었다. 190여 쪽에 펼쳐진 해녀의 물질 장면과 일상이 한층 생생하게 다가오는 건 똑같은 현장감과 친밀감이 바탕이 된 결과다.

그림 속 주인공처럼 해녀가 되고 싶어 어촌계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지만 현실의 벽은 예상보다 높았다. 현 작가는 “해녀라는 특정 직업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그는 서울 SI그림책학교에서 공부하며 창작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다. ‘다이버’는 그 첫 결실이다.

이 책에 실린 작품은 이달 28일까지 도남성환상가 동쪽 카페웨이브에서 만날 수 있다.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전선희기자

제주교향악단 다시 정인혁 지휘자 체제

제주시 2년간 재위촉 결정 제주합창단은 내년초 쯤에 차기 지휘자 공모 선발기로



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교향악단은 다시 지휘자를 맞았지만 제주시가 운영하는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차기 지휘자는 내년에야

정인혁(사진) 지휘자가 다시 2년간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봉을 잡는다. 제주시는 22일자로 정인혁 지휘자를 상임지휘자로 재위촉했다.

2013년 7월 제주교향악단 지휘자로 최초 위촉된 정인혁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지휘과를 졸업한 뒤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국립음악대학 한스 아이슬러 지휘과와 동 대학 지휘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제주교향악단을 또다시 이끌게 된 정인혁 지휘자는 이번에 지역 예술인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측은 “재위촉 과정에 제주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 제2분과 위원들의 의

공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합창단은 지난해 4월 전임 지휘자 위촉 기간 만료 이후 특별 전형 선발이 불발되면서 지금까지 후임자를 뽑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오는 10월과 11월 예정했던 정기연주회는 두 명의 객원 지휘자를 각각 초빙해 기획연주회로 치를 예정”이라며 “차기 지휘자는 내년 1월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거리의 작가가 새로 빛은 ‘탐라순력도’

연광리 신진청년작가전 서승환의 ‘신, 탐라순력도’



서승환의 ‘성산관일’.

18세기 초 탐라순력도를 지금 다시 그린다면 어떤 화면이 나올까. 제주시 연북로 연광리가 선정하는 신진청년작가전 뽑힌 서승환 작가의 초대 개인전에서 그 궁극음을 풀 수 있을 듯 하다.

‘신, 탐라순력도’란 제목이 달린 이번 개인전에서 서승환 작가는 지난 300년 동안 달라진 제주 곳곳 모습을 캔버스에 아크릴을 쓰거나 혼합 재료를 이용해 표현했다. 화면에는 수없이 나누어진 점, 선, 면이 흩어져 있다. ‘성산관일(城山觀日)’ 등 화려한 색감이 더해진 ‘신, 탐라순력도’ 연작은 그것들이 또하나의 균형잡힌 형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길에서 예술을 배우고 있다”는 서 작가는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존

재들의 표정과 일상이 작업이 된다고 했다. 그가 주로 그려온 주제 역시 길 위의 이야기다.

지난 22일 시작된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57-4477.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쫓지

이중섭 편지 소재 음악극

이중섭미술관이 ‘가족에게 보내는 그림편지’ 시상식에 맞춰 이달 24일 오후 2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음악극 ‘이중섭-마지막 편지’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이중섭이 바다 건너 일본에 사는 아내와 주고 받았던 편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극단 테우리가 제작했고 황진, 김정민, 닐루, 백동현이 출연한다. 문의 760-3567.

서귀포서 토요일 문화유람

(사)제주문화포럼(원장 홍진숙)은 이달 27일 오전 9시 제주문화포럼을 출발해 서귀포시 일대에서 ‘일상으로의 여행-토요 문화유람’을 운영한다.

탐방지는 이중섭미술관, 서귀포관광극장, 기암미술관, 김성란 작가 작업실 등이다. 참가비는 1만2000원으로 차량과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064)722-6914.

김만덕기념관 경제교실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NH농협은행과 손을 잡고 방향을 맞춘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료 어린이 경제교실을 운영한다.

8월 7-9일 진행되는 어린이경제교실은 화폐에 담긴 이야기, 은행의 역할, 예·적금의 차이 등 금융지식을 배우고 직접 통장을 만들어 보는 체험과 함께 서귀포시 일대에서 ‘일상으로의 여행-토요 문화유람’을 운영한다. 문의 064)759-6093.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제주 편백 숲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태그 매월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술불구이 / 떡갈비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 T.064.805.5099 T.064.764.6678